중국, 경제성장률 6.5% 사수 '총력'

미·중 무역갈등 여파 경기하방 우려 커져
하반기 재정·통화정책 유연성 제고 시사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하방 우려가 커진 중국 정부가 연간 6.5%의 경제성장률을 사수하려고 하반기에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은 전날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보고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정책의 유연성과 유효성을 높여 취업·금융·무역·투자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허 주임은 "복잡다단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일련의 위험에 직면했지만 안정적 경제발전을 유지하고 발전의 질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함에도 당면한 변화와 새 문제들, 새 도전을 주시해야 한다"며 "국내의 심층적인 구조적 모순과 문제들이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이번 발언은 향후 경기 둔화 조짐이 더욱 뚜렷해지면 중국 정부가 더욱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펼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7%를 기록해 1분기의 6.8%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작년 1분기 6.9%에서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제시했다. 아직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지만 미중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3~0.5%포인트 깎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허 주임은 "유효투자는 공급구조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각급 정부의 투자 인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국민경제 관련 인프라 투자 자금을 보장하고,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상의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자로 함께 나선 류쿤 재정부장도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경제운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선제 조정, 미세조정을 하는 가운데 더욱 유효한 방식으로 실물 경제에 도움을 줌으로써 합리적인 경제 성장 구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문제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부채감축(디레버리징) 정책을 펴왔다. 통화정책도 '신중·온건'을 기조로 통화량 증가속도를 제어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경제성장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미국과 무역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경기하방 우려가 커지자 통화정책을 완화 방향으로 미세조정하는 한편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경기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터 전 대통령 35년째 봉사활동 27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미셔와카에서 '해비타트 포 휴매니티(Habitat for Humanity)' 활동에 참가 중인, 지미 카터(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로잘린 여사 가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해비타트는 국제자선단체로 올해 93세인 카터 전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35년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아베 대화 진전 볼까

일본인 조기석방 이어
북·일 비밀회담 개최 밝혀져

북한이 구속했던 일본인을 조기에 석방한 데 이어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비밀리에 회담을 연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측간 대화의 진전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 내각 정보관, 북한의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이 지난달 미국에 알리지 않고 베트남에서 비밀회담을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북한과 다양한 루트를 통해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이처럼 회담의 정황이 구체적인 장소, 참석자와 함께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타무라 정보관은 일본 정부 내각정보조사실의 수장이며, 김성혜 실장은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행했었다.

두 인사 모두 비중이 작지 않은 인물이어서 대화를 위한 양측간 접촉이 꽤 무르익은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런 소식은 북한이 구속했다가 석방한 일본인 스기모토 도모유키(39) 씨가 28일 일본에 돌아온 직후 나왔다. 스기모토 씨가 석방된 것은 구속된 지 보름여만으로 과거 사례에 비해 석방까지 걸린 시간이 이례으로 짧다는 점에서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에 의욕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북한이 스기모토 씨를 석방하면서 '인도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도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기대를 뒷받침한다. 일본이 스기모토 씨의 석방을 요청한 것에 북한이 응답한 만큼 최근들어 양측이 협상을 통해 성과물을 만들어낸 첫 사례라는 점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자녀들도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5000억 '쾌척'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미국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AP통신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멜린다가 설립한 민간 자선재단인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이날 향후 5년간 미국 내 저소득층, 소수계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는 학교 프로그램 네트워크에 4억6000만 달러(약 5099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빈곤 지역 공립학교와 직접 일하는 단체에 제공되며, 일부는 교육구와 차터 스쿨 기관에 지원된다.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이를 위해 1차로 13개 주의 빈곤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실시될 19개 프로그램에 거의 1억 달러(약 1109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수학, 영어 실력과 같은 학습 능력 향상에서부터 정학과 같은 위험 요인 대응, 대학 지원 과정에 이르기까지 대상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돕는 모든 범위의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AP통신은 이 같은 지원 방식은 지역 단체가 주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그동안 교육 분야에 있어 전국적이거나 전 조직에 걸친 하향식 계획을 지원했던 데서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유엔안보리, 로힝야족 학살 책임자 처벌 요구 거세

미얀마군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집단학살할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인종청소'를 자행했다는 유엔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책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라는 요구가 한층 거세졌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를 두둔해온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혀 안보리 차원의 책임자 처벌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29일 AP,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로힝야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끔찍한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유엔 진상조사단이 지난 27일 발표한 로힝야족 유혈사태 관련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보고서는 미얀마군부가 명백하게 인종청소 의도를 갖고 대량학살과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책임자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과 다른 다섯 명의 장성을 국제법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주도하는 미얀마 문민정부도 로힝야족을 겨냥한 증오표현을 사실상 허용하고, 문서 기록들을 폐기했으며 군부의 반인권 범죄를 막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미얀마군에 의해 자행된 엄청난 인권 유린과 학대의 패턴을 찾아냈다"며 "이는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필리핀서 한달만에 또 폭탄테러…37명 사상

필리핀에서 한 달 만에 또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했다.

29일 GMA뉴스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5분(현지시간)께 필리핀 남부 술탄쿠다라트 주에 있는 이슬란시의 한 주유소 근처에서 사제폭탄이 터져 1명이 숨지고 군인 2명과 어린이를 포함해 36명이 부상했다.

당시 주변지역에서 도시 수립 61주년 기념 축제가 진행 중이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위중해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현지 군경이 밝혔다.

군경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폭발물 2개를 더 발견하고 안전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군경은 "한 남성이 이상한 가방을 놓고 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용 트럭이 지나가면서 폭발물이 터진 것으로 미뤄 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반군인 '방사모로이슬람자유전사단(BIFF)'을 배후로 지목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남부 바실란주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당시 IS는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